



3면

전북시민사회연대회의의 내년 도 예산안 분석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음 10월 9일) 제386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전북자치도·전북 국회의원들

# “핵융합 부지 우선협상지 선정 취소하라”

“협상지 선정된 나주 부지 86% 개인 소유 지자체 차원 무상양여 소유권 이전 보장 불가 공고 기준 평가 여부 지역별 점수 공개해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인공태양)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우선협상지역 선정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토지 소유권 이전 충족, 16년간 꿈의 에너지 품어온 새만금이 왜 탈락인가”라고 규정하며, 우선협상지역 선정의 취소와 기준 적용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장,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 박희승·이성운 의원 등이 참석했다. 도와 전북 정치권은 과거부가 지난 24일 우선협상지역으로 전남 나주를 발표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실망을 표했다. 특히 공고문이 명시한 핵심요건을 새만금만 충족했음에도 배제된 것은 “명백한 부당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과거부 공고문에는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부지가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기돼 있다.



27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전북 국회의원들이 핵융합 부지 우선협상지역 선정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전북도와 군산시는 해당 기준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연구시설 완공 즉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새만금 부지는 50년 임대·50년 갱신 구조였으나, 공고문 소유권 이전 우선 검토 조항에 따라 출연금 지원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 반면 우선협상지역으로 선정된 나주 후보지는 국가16년 토지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86%가 절대농지·준보전산지·묘지 등 개인 소유 지장물로 구성돼 있다. 전북도는 이 같은 구조에서는 지자체 차원의 무상양여나 소유권 이전 보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나주 측이 ‘특별법 제정’을 통한 무상양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 역할

을 지자체가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내세운 것”이라며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나주가 부지 평가에서 ‘매우 우수’ 판정을 받은 점에 대해 심사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역시 문제로 제기됐다. 윤준병 도당위원장은 “현행법상 충족이 어려운 조건을 내걸어 놓고, 정작 그 조건을 실제로 충족한 새만금은 탈락했다”며 “처음부터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기획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도와 군산시의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 노력은 2009년 국가핵융합연구소(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와의 MOU 체결로 시작했다. 이후 16년간 기반을 축적했고, 과거부 장관이 참여한 새만금위원회 의결을 통해 관련 부지가 새만금 기본계획(MP)에 공식 반영되기도 했다.

김관영 지사는 “16년 전 MOU는 지자체와 국가기관 간의 약속이자 신뢰의 근간”이라며 “한국연구재단에 부지 선정 우선권과 관련해 공식 확인을 요청했다. 필요하다면 행정적·법적 수단을 포함해 모든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항목과 기준이 실제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적용됐는지 명확한 해명을 과거부에 요구했다. 지역별 기본요건 평가와 점수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고 내용과 평가 기준에 반하는 부당한 우선협상지역 선정은 즉각 백지화돼야 한다”며 “새만금에 정당한 우선권을 부여하라”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지역 주요 현안과 관련 전주시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은 이 의원과 전주시의원들이 한자리에서 화이팅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도민 애로사항 해결 ‘쟁결음’

민주 이원택 의원, 도내 시군의회·소상공인 등과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의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도내 시군의회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전북건설협회, 전북전문건설협회, 화물공제조합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삶의 현장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26일 이 의원은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를 찾아 의정실에서 균형발전 및 생활인프라 확장을 비롯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과 최주만 부의장을 포함한 다수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주 도시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등 예산 확보 △지역 균형발전 및 생활인프라 확충 △지방의회와 국회의 긴밀한 정책 공조 필요성 등 전주시 주요현안과 시민생활과 직결된 의정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원택 의원은 “전주는 전북 발전의 중심 도시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이라며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남관우 의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최주만 부의장은 “전주의 주요 현안이 차질 없이 추

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도내 지역 곳곳을 누비며 지역민들과 만남을 갖고 현안 문제에 대한 직접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방침이다.

또한 내달중에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건설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협회를 찾아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기업들의 도내 진출 시 지역업체 공동지분참여를 상생과 같은 현안들을 집중 다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현장을 방문해, 일선 근로노동자와 현장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조관계자들도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이 의원은 “도내 전지역에서 가중되는 경제난으로 인한 도민들의 생활이 날로 궁핍해지고 어려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국회차원에서도 이를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며 “지역건설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체 및 화물공제조합을 비롯한 일선 현장근로자와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즉각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새로운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도는 전통과 현대, 문화와 스포츠가 어우러진 ‘문화올림픽’ 콘셉트의 홍보영상 4종 6편(60초 1편, 30초 1편, 20초 2편, 15초 2편)을 완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8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된

## ‘문화올림픽’ 이 컨셉... 도, 전주 하계올림픽 홍보영상 공개

전통·현대 조화시켜... 전주 대표공간서 촬영

이번 제작은 ㈜함파트너스가 맡았으며, 한국인문진흥재단의 광고·홍보 컨설팅을 반영해 완성도를 높였다. 영상은 전주의 문화 정체성을 현대

적으로 재해석한 HIPTRO(hip+retro) 콘셉트를 기반으로, ‘더 새롭게, 더 우리답게’라는 핵심 메시지를 담았다.



촬영은 경기전, 전주향교, 덕진공원 등 전주의 전통과 문화 요소를 찾아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이뤄졌다. 전통 무형문화재 및 무형유산 보유자와 지역 스포츠 선수들이 직접 참여하며 지역색을 드러냈다.

침선장 신애자, 전주한지장 최성일, 전주함곳마을 공연팀, 가깝집 관계자, 허들 및 유도 선수 등 총 22명이

출연했으며, 스포츠 경력이 있는 일반 모델도 함께했다.

일부 촬영이 어려운 종목의 장면은 최신 AI 기술로 구현했다.

완성된 홍보영상은 도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공개되며, 전국 방송·라디오와 KTX 역사를 포함한 주요 이동거점에도 송출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